전후 식민지와 탈식민지화의 정치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별도의 영국 직할 식민지

제B편 제I장에서 영국 직할 식민지로서의 체제를 서술한 해협식민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존속하지 못했습니다. 이 편 제I장에서 검토한 일본 점령기와 영국 군정 시기를 거쳐 민정이 복귀하자, 런던은 이 지역의 영토를 재편했습니다. 1946년 4월 1일 해협식민지는 해체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독자적인 영국 직할 식민지가 되었고, 총독이 이끄는 민정 아래 말레이반도와 분리되었습니다.[1]

이 분리는 런던이 말레이 국가들을 재편하던 말레이반도에서의 영국의 우선순위와, 해군기지이자 자유항으로서 싱가포르가 지닌 특수한 지위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결과는 항구와, 주석과 고무를 공급하는 배후지 사이에 행정적 경계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다만 교역, 통화, 은행업은 여전히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절들에서 보듯이 이 식민지와 말라야 지역은 공동 통화위원회가 발행하는 통화를 계속 함께 사용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전후 경제는 고르지 않게 회복되었습니다. 1947년의 파업으로 대중교통과 기타 서비스가 크게 마비되었지만, 그해 말부터 주석과 고무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2] 제B편 제IV장은 항구의 번영이 이 두 상품에 얼마나 밀접하게 의존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의존은 전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20년 동안 싱가포르에 관한 모든 정치적 구상은 말라야 배후지에 대한 접근 문제에 답해야 했습니다.

첫 선거와 비상사태

정치적 변화는 더디게 시작되었습니다. 1946년 입법위원회선거조례(Legislative Council Election Ordinance)는 식민지 역사상 최초의 선거를 규정했으며, 유권자들은 입법위원회의 비관선 의원 13명 중 6명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선거는 1948년 3월 20일에 치러졌고, 투표권은 성인 영국 신민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등록이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약 2만 2,300명만이 유권자로 등록했고, 그중 1만 4,126명이 투표일에 투표했습니다.[3] 선거관리국(Elections Department)은 잠재적 유권자 수를 약 20만 명, 등록 유권자 수를 2만 2,395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4]

선거는 반란의 그늘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약 3개월 뒤인 1948년 6월, 말레이반도의 공산주의 단체들이 이끈 무장 반란인 말라야 비상사태(Malayan Emergency)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민지 정부는 비상 구금 권한을 도입했고, 이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싱가포르의 치안 법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5] 비상사태는 또한 자치를 급진 좌파로부터 떼어 놓아야 한다는 영국의 시각을 굳혔으며, 이러한 우려는 이후 탈식민지화의 모든 단계에 걸쳐 나타납니다.

1951년의 두 번째 선거에서 선출 의석은 9석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해 국왕 조지 6세는 싱가포르에 시(city)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6] 영어 교육을 받은 전문직과 상인들의 지지를 받은 진보당(Progressive Party)이 초기 선거를 주도했습니다. 진보당의 좁은 지지 기반은 아직 규모가 작고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는 유권자층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렌델 헌법과 1955년 선거

1953년 정부는 조지 렌델(Sir George Rendel) 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임명하여 헌법 개혁을 검토하게 했습니다.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32석의 입법의회가 만들어졌으며, 그중 25석이 선출직이었고, 유권자 자동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7] 자동 등록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1955년 유권자 수는 6배 넘게 늘어 약 30만 명이 되었고, 약 15만 8,000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52.66%였습니다.[8]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이 개혁으로 유권자 수는 약 7만 6,000명에서 30만 299명으로 늘었습니다.[9]

1955년 4월 2일 선거는 첫 번째 정치적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진보당은 4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데이비드 마셜(David Marshall)이 이끄는 노동전선(Labour Front)은 10석을 얻어 3석을 얻은 UMNO–MCA 연합과 연립정부를 구성했으며, 신생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도 3석을 얻었습니다. 마셜은 1955년 4월 7일 수석장관(Chief Minister)이 되었습니다.[10]

새 정부는 출범 첫 몇 주부터 노동계의 강경 투쟁에 직면했습니다. 1955년 5월 12일 혹리(Hock Lee) 버스 회사의 파업은 폭동으로 번졌고, 경찰관 1명과 미국 언론 특파원 1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11] 투자자들에게 이 폭동은 신뢰할 수 있는 노동력과 운송에 교역을 의존하는 항구에서 선출 정부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영국에게는 아직 국내 치안을 넘겨줄 수 없다는 판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메르데카 회담과 1958년 싱가포르국법

마셜은 1956년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초당파 대표단을 이끌고 런던으로 갔습니다. 회담은 1956년 4월 23일 시작되어 5월 15일 결렬되었습니다. 식민장관은 1957년 4월을 독립 시점으로 하자는 제안을 거부했고, 영국은 국내 치안 통제권 이양을 거부했습니다. 마셜은 임무가 실패하면 사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956년 6월 7일 실제로 사임했습니다.[12]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후임자인 림유혹(Lim Yew Hock)은 좌파에 대해 더 강경한 노선을 취했습니다. 1956년 중국계 중학교 폭동 이후 그의 정부는 약 900명을 체포했고, 이는 현지 정부가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런던에 확신시켰습니다. 1957년 3월 11일 새로운 회담이 시작되어 4월 11일 싱가포르국(State of Singapore) 수립에 합의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1957년 싱가포르시민권조례(Singapore Citizenship Ordinance 1957)는 1957년 11월 1일 시행되어 처음으로 현지 시민권을 창설했습니다.[13]

영국 의회는 싱가포르국법(State of Singapore Act)을 통해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했습니다. 이 법은 1958년 7월 24일 의회를 통과했고 1958년 8월 1일 국왕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명목상 국가원수로 남은 여왕을 대표하여 양 디페르투안 네가라(Yang di-Pertuan Negara)가 총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국방과 외교는 런던이 계속 맡았습니다. 국내 치안은 영국 측 위원 3명, 총리를 포함한 싱가포르 측 위원 3명, 말라야 연방 측 위원 1명으로 구성된 국내치안위원회(Internal Security Council)에 맡겨졌습니다. 말라야 측 의석은 쿠알라룸푸르에 싱가포르 치안에 대한 발언권을 주었으며, 이는 섬의 정치적 미래가 말레이반도의 미래와 얽혀 있다는 초기 신호였습니다.[14]

주

1. Wikipedia, “Crown Colony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46년 4월 1일 해협식민지가 해체되었고 “Singapore became a Crown Colony with a civil administration headed by a Governor and separated from peninsular Malaya”. ↩
2. Wikipedia, “Crown Colony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47년의 파업으로 대중교통과 기타 서비스가 크게 마비되었으며, 경제는 주석과 고무 수요에 힘입어 1947년 말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
3. Wikipedia, “Crown Colony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48년 3월 선거, “The right to vote was restricted to adult British subjects”. Wikipedia, “1948 Singaporean general electio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948년 3월 20일 투표; 선출 의석 6석; 등록 유권자 2만 2,334명; 투표수 1만 4,126표. ↩

4. Elections Department Singapore, “70 Years of Elections: Milestones”(eld.gov.sg): 1946년 입법위원회선거조례, 비관선 의원 13명 중 6명 선출; 잠재적 유권자 약 20만 명, 등록 2만 2,395명, 투표 1만 4,126명. ↩

5. Wikipedia, “Crown Colony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말라야 비상사태는 1948년 3월 선거 약 3개월 뒤에 시작된 “an armed insurgency by communist groups in Malaya”였으며, 이 시기에 국내 치안 법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6. Wikipedia, “Crown Colony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51년 입법위원회 선거의 선출 의석은 9석이었고 그중 싱가포르 진보당이 6석을 얻었으며, 시의 지위는 1951년 9월 22일 국왕 조지 6세가 부여했습니다. ↩

7. Wikipedia, “Crown Colony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53년 정부는 “to study the possibility of self-government for Singapore” 조지 렌델 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Wikipedia, “1959 Singaporean general electio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55년 렌델 헌법은 입법의회 32석을 규정했으며, 그중 25석은 선출직, 7석은 임명직이었습니다. ↩

8. Wikipedia, “1955 Singaporean general electio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more than 300,000 registered voters”(결과표: 30만 199명); 유권자 수는 “had expanded more than sixfold compared to previous elections”; 투표수 15만 8,075표, 그중 유효표 15만 6,324표; 투표율 52.66%. ↩

9. Elections Department Singapore, “70 Years of Elections: Milestones”(eld.gov.sg): 렌델 위원회가 권고한 자동 등록은 “immediately raised the number of voters from about 76,000 to 300,299 in 1955”. 이 수치는 Wikipedia 결과표의 30만 199명과 약간 다릅니다.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0. Wikipedia, “Crown Colony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55년 4월 2일 선거; 진보당 4석, 노동전선 10석, UMNO–MCA–MU 연합 3석, 인민행동당 3석. Wikipedia, “David Marshall (Singaporean politicia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55년 4월 7일부터 수석장관. ↩

11. Wikipedia, “Hock Lee bus riot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55년 5월 12일 폭동; 경찰관 앤드루 테오(Andrew Teo)와 미국 특파원 진 D. 시먼즈(Gene D. Symonds)를 포함해 4명 사망; 31명 부상. ↩

12. Wikipedia, “David Marshall (Singaporean politicia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회담은 1956년 4월 23일 시작되었고, 레녹스보이드(Lennox-Boyd)는 4월 25일 1957년 4월 독립 제안을 거부했으며, 회담은 1956년 5월 15일 결렬되었습니다. Wikipedia, “Merdeka Talk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회담은 영국이 국내 치안 이양을 거부하면서 결렬되었습니다. Wikipedia, “David Marshall (Singaporean politicia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56년 6월 7일 수석장관직 사임. ↩

13. Wikipedia, “Merdeka Talk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림유혹은 1956년 마셜의 뒤를 이어 수석장관이 되었고, 중국계 중학교 폭동으로 약 9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Wikipedia, “Self-governance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회담은 1957년 3월 11일 시작되어 4월 11일 마무리되었으며, 1957년 싱가포르시민권조례는 “commenced on 1 November 1957”. ↩

14. Wikipedia, “Self-governance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국법은 1958년 “given royal assent after having been passed by the Parliament on 24 July”였으며, 재가는 1958년 8월 1일이었습니다. Wikipedia, “Self-governance of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양 디 페르투안 네가라는 “to represent Queen Elizabeth II, who remained titular head of state”였으며, 국내치안위원회는 영국 측 위원 3명, “three from Singapore (including the Prime Minister) and one from the Federation of Malaya”로 구성되었습니다.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